

# 섬유·고무·식품 ... 위기의 경공업

### 호남지방통계청 최근 10년 간

#### 광주·전남 제조업 변화 분석

지난 10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산업구조가 크게 변하면서 섬유·고무·식품 등 경공업 사업체 규모와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닌 경공업이 쇠퇴하면서 비숙련 인력 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10년 간(2008~2018년) 지역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변화를 분석해보니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상위 5위 안에는 의복·모피, 음료, 종이, 인쇄·기록매체, 가구, 목재 등 업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서 사업체 감소율이 가장 큰 업종은 지난 2008년 27개에서 10년 새 13개로 절반 이상(51.9%) 줄어든 의복·모피 산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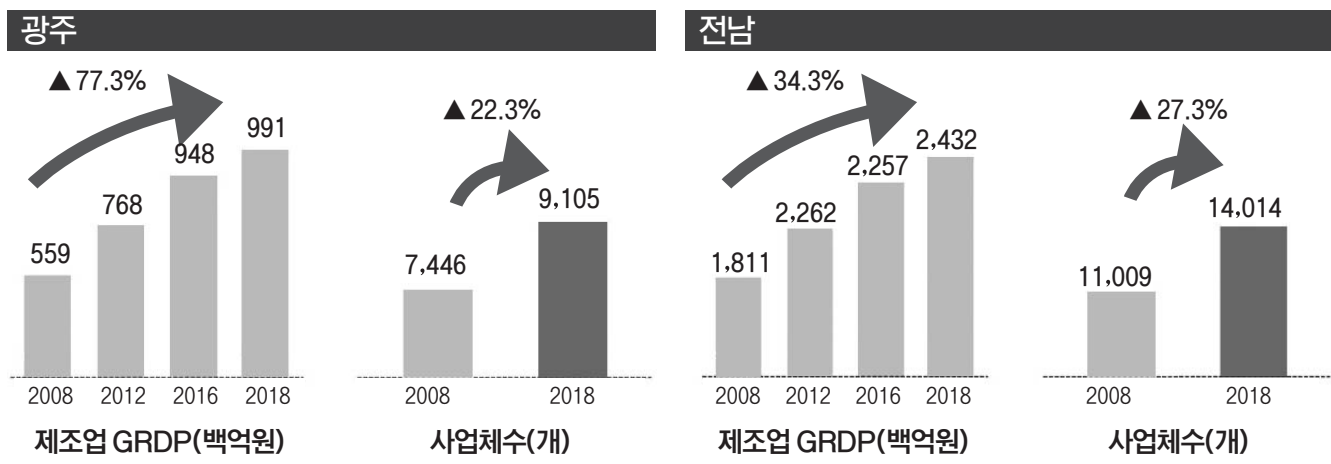
이어 석유정제(-50%), 음료(-37.5%), 종이(-17.6%), 인쇄·기록매체(-15%), 가구(-12.5%), 섬유(-4.2%) 순으로 크게 줄었다.

전남지역은 17개 음료 제조업체 가운데 6개가 사라지며 35.3%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가구(-38.5%), 목재(-11.1%) 등이 큰 감소율을 보였다.

업체가 사라진 만큼 이들 업종 출하액도 급감했다.

최근 10년 동안 광주지역 의복·모피 산업 출하액은 16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34억원 감소(-21.6%)했다. 인쇄·기록매체 산업도 13.9%(-88억원) 줄었다.

출하액이 감소한 전남지역 제조업종은 음



#### 사업체·종사자 수 가장 많이 줄어든 상위 5위 안에

#### 의복·모피·음료·인쇄·가구·목재 등 경공업종 몰려

료(-46.8%), 전자(-77.9%), 조선(-31%), 종이(-26.3%), 의복·모피(-24.9%), 가구(-14.1%) 등 6개 업종이었다.

경공업계열은 업종별 부가가치에서도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다.

광주지역 의복·모피산업 부가가치는 43억원(-40.3%) 감소한 64억원을 기록했고 인쇄·기록매체도 2.8%(-7억원)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남지역도 부가가치가 줄어든 6개 산업 가운데 음료(-57.6%), 가구(-55.4%), 의복·모피(-24.6%), 종이(-16.4%) 등 경공업이 주를 이뤘다.

이들 업종의 쇠락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광주지역 의복·모피 업종 종사자 수는 무려 331명 줄며 61%의 감소율을 보였다. 인쇄·기록매체(-22.7%), 섬유(-13.9%) 등도 종사자 수가 줄었다.

전남지역 종사자 수 감소율은 음료(-

43.7%), 종이(-30.6%), 전자(-28.1%), 의복·모피(-28%), 목재(-12%) 순으로 높았다.

비교적 비숙련공이 많은 경공업 특성상 종사자가 받는 연금급여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광주 의복·모피산업 연금급여액은 56억원에서 21억원 줄어든 3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종이(-25.3%), 음료(-3.1%) 산업 연금급여액이 감소했다.

김봉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공업은 인건비 영향을 크게 받기에 경영방이 광주공장 문을 닫고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금호타이어의 경우 중국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생산량만 줄어드는 악재도 겹쳤다"며 "광주·전남지역 인쇄업의 경우 전국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하락세를 겪고 있고 맥주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광주분출산단은 다른 제

품의 호조로 점유율을 잃어가는 등 경공업이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경공업 조업률이 감소하면서 비숙련공 등 관련 인력이 퇴출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실업수당과 생활안정자금, 공공일자리 등으로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지역에서 육성하는 주력 산업에 대한 인력을 꾸준히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는 4600여곳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와 전남에서 각 1659개(22.3%)와 3005개(27.3%)가 늘었으나 전국 평균 증가율(33%)에는 크게 못 미쳤다.

광주 제조업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9조9000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77.3%(4조3000억원) 늘었다. 전남 제조업이 차지하는 지역 내 총생산은 24조 3000억원으로 34.3%(6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전국 증가율(70.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76.78 (-18.91) ↓ 금리(국고채 3년) 0.837 (-0.003)
- ↓ 코스닥 757.06 (-1.56) ↑ 환율(USD) 1196.40 (+5.20)

## 광주·전남 기초연금 수급자 47만명

#### 전체 수급자의 8.9%

#### 광주 북구·전남 여수 많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체 수급자의 8.9% 정도인 47만여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기초연금 수급자는 광주 13만709명·전남 34만3307명 등 47만40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수급자 534만5728명의 8.9%를 차지하는 수치다.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광주·전남 지역 모두 전국 평균(66.6%)을 웃돌았다.

광주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수(19만5479명) 대비 66.9%에 달하는 인구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북구 수급자가 4만2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2만6420명 ▲서구 2만 4741명 ▲남구 2만4265명 ▲동구 1만 317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65세 이상 42만2548명의 81.2% 정도인 34만3307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시·군별로 보면 여수(4만268명), 순천(3만466명), 목포(2만7723명), 고흥(2만3084명), 나주(2만505명) 등이 수

급자로 집계됐다.

한편 국민연금이 지난해 8-9월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벌인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2.4%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61.2%는 '만족'하나, 9.5%는 '만족하지 못함'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88.1%)가 인상되지 않은 20-70%(80.0%) 보다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나라가 나를 존중해 준다(57.8%)'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외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46.7%)',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37.7%)' 등 답변도 이어졌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시행 당시 424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535만 명으로 111만 명 증가했다. 월 최대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018년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 에너지서비스 중개 플랫폼 기능 추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자사에서 구축한 에너지 분야 최초 오픈 플랫폼인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이른바 '엔터'(EN:TER)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엔터'(en-ter.co.kr)는 웹 포털 및 모바일 웹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개인 및 기업 등 이용자들이 다양한 에너지서비스를 중개해 주는 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서비스는 각종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고객과 기업을 최적으로 연계하는 마켓 부문, 전력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비즈니스 창출을 도와주는 데이터 부문, 각종 편의 서비스 부문이 있다.

신규로 추가된 서비스는 'K-BEMS 마켓' '에너지효율향상마켓' '에너지신산업 펀드 마켓' '에너지 컨설팅서비스' 등이 있다. 고객들은 K-BEMS 마켓을 통해 K-BEMS를 신청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

리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에너지효율향상마켓을 통해서 한전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저효율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교체 소요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저탄소 친환경 발전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은 에너지신산업펀드 마켓을 통해 펀드 운영사에게 투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서비스들로 인해 에너지 수요자들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서비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사업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초·중·고 가정에 무상 지원 농산물 나들이꾸러미 인기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지역 초·중·고 가정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2차 농산물꾸러미상품 중에 나들이꾸러미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나들이꾸러미는 9종의 친환경인증농산물로 구성됐다.

농산물꾸러미 2차 지원사업은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학교급식 중단으로 집행하지 못한 3-4월분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4만원 상당의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 상품구매 포인트로 지급한다.

학부모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에 각 학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지난 9일부터 원하는 상품을 4만원 상당 포인트로 이용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마철엔 습기제거제" 남부 지방에 이른 장맛비가 내리면서 11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 직원들이 자체 출시한 습기제거제(10개 8000원)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